



송도마을 77계단

99%는 지나쳤던 숨은 유적들 '관광 목포' 1% 속살

멜라콩다리비·송도마을 77계단·고하도 육지면 발상지비 등
시, 근대사 애환 품은 유적들 스토리텔링 관광코스 개발키로



고하도 육지면 발상지비

“목포, 어디까지 가봤니?”

근·현대가 공존하는 목포 원도심에는 목포 시민들도 잘 몰라 99%가 그냥 지나쳤던 숨은 보석 같은 유적들이 많다.

하지만 그동안 관광 상품 개발이 행정 기관 주도로 이뤄지다보니 이러한 숨은 보석의 가치가 제 빛을 발휘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최근 들어 유달산~고하도를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볼거리 창출을 위해 이 같은 원석들을 발굴해 갈고 다듬어 보석으로써 가치를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역사적 관점에서 ‘양양의 칼’의 상징성을 지닌 곳인 만큼 아픈 역사를 재조명하는 스토리텔링과 이색 코스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관광 상품화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도심에 산재된 근대사의 애환을 품고 있는 비석(碑石)을 중심으로 목포의 1% 속살을 들여다봤다.

◇멜라콩 다리 비(碑)=목포시민 다수가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한 위치를 아는 이는 극소수다.

목포역에서 화물취급소로 돌아가는 길목인 목포역 담장에 초라하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1946년 4월 20일 건립된 비의 전면에는 ‘멜라콩 다리’라고 새겨져 있고 우측엔 ‘목포역 정교 박길수리’라는 이름이 있다.

소아마비 장애에 체격도 왜소했던 박길수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성금을 모아 목포역 주변으로 흐르는 하천 위에 다리를 세운 인물로, 멜라콩은 그의 별명이다. 그는 목포역 소화물 취급소에 근무하며 무려 48년 동안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데 앞장서왔다.

◇옛 송도신사터와 77계단=1910년 일본인이 목포에 조성한 대표적 신사인 송도신사로 올라가는 계단이다. 일명 77계단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원래 소나무가 많아 송도(松島)로 불리웠지만 일본인들이 소나무를 전부 없애고 뱃나무를 심은 뒤 정상에 신사를 세워 조선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굴욕의 역사 현장이다.

일제강점기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이곳 계단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것이 의무였다고 한다.

이곳은 최근 목포시의 노력으로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도

시지역 새마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총 사업비 56억원이 투입돼 안전, 생활·위생인프라, 주택정비 등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진행된다.

◇중순 구중명 영세불망비=목포 수문로에 1906년 건립된 이 비는 구중명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지역민들이 세운 공덕비다. 구중명은 무안 갈리서 산하의 경찰서인 경무서 소속 경찰로 작적이 충수이었다.

그는 조선인과 일본인 간에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조선인의 권익을 위해 앞장섰고 법률지식이 없는 조선인들을 대변했다. 특히 이 비는 최초 목포경찰서라 할 수 있는 무안경무서 자리에 세워져 더 큰 의미가 있다.

◇고하도 육지면 발상지 비=고하도는 1904년 목포주재 일본 영사 와카마쓰 우사부로(若松 三郎)에 의해 국내 최초로 육지면이 재배된 발상지인 동시에 목포항에

삼백(三白-목화, 소금, 쌀)의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전국 3대항 6대도시로써 명성을 떨치게 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곳이다.

당시 고하도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 일대에서 생산된 면화가 국내 생산량의 30%~40%를 차지했고 이곳에서 생산된 면화는 주로 무안·해남·군산에 건립된 면 제조공장을 거쳐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는 수모를 겪었다.

면화장려 30년 기념회가 1936년에 건립한 조선 육지면발상지(朝鮮陸地綿發祥之地) 기념비는 이중무궁 유적지 모충각 주변에 세워져 있다.

이와 함께 ▲일제 강점기 유달산을 일본인에게 팔아먹으려 했던 설화로 유명한 ‘정병조 영세불망비’ ▲일제 강점기 목포형무소 수감자들을 화장했던 장소를 가리키는 ‘목포형무소 합장비’ ▲목포~신의주 498km와 목포~부산 378km의 출발 기점인 ‘국도 1.2호선 원기점’ ▲목포의 한을 달래주었던 ‘목포의 눈물 노래비’ 등 비(碑)를 테마로 한 유적지 20여 곳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박홍목 목포시장은 “원도심에 산재된 비(碑)들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면서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계기로 이들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결시켜 이색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목포 항구축제 기간 중 운영된 목화체험관에서 관광객들이 목포시가 제공한 의상을 입고 포토 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항구축제서 목화체험관 인기 만발

2000여명 찾아 관심 집중

고하도 목화단지 조성 탄력

올해 목포 항구축제에서 운영된 30개 체험부스 가운데 목화 체험관이 가장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목포시에 따르면 내년 고하도에 대단위 목화단지 조성을 앞두고 항구축제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목화 체험부스를 운영한 결과,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워 2000여명이 직접 체험행사에 참여했다.

또 1만 원대 목화상품 10여종을 전시 판매해 5일 동안 6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적어도 500명 이상이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목포시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타고 고하도 목화밭 구경 오세요’라는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목화부케와 화관, 남성용 두루마기와 여성용 치마·저고리 등을 비치해 의상을 입고 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 존을 꾸몄다.

체험 부스 주변에는 농업진흥청 산하 바이오 에너지 작물연구소에서 목화 화분 150개를 임대 설치해, 이색적이고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특히 목화체험 부스가 등장년중에서

인기를 끌 것이라는 예초 예상과 달리 젊은 층의 참여가 더 많아 다양한 계층에서 인기를 누리 관심이 집중됐다.

체험장에서 만난 김부영 목포 원도심 상인회장은 “오랜만에 목화를 봤다”며 “어렸을 때 달짝지근한 다래(열매)를 많이 따 먹었고, 서리하다 두들겨 맞기도 많이 맞았는데 잠시나마 회상에 젖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또 체험장 주변에 전시해 놓은 목화화분을 구입하고 싶다는 일부 관광객들의 요청에 작물연구소의 협조를 구해 50여개의 화분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 이번 목화체험관 부스는 창조지역발전위원회 2017년 창조지역 공모사업에 ‘고하도 목화체험관 조성 사업’을 응모한 것을 계기로 박홍목 시장의 아이디어로 설치·운영하게 됐다.

이지홍 목포시 기획예산과장은 “목포시는 앞으로 고하도를 친환경목화생산의 중심지로 목화산업을 재조명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목화를 이용한 다양한 친환경 목화상품과 식품을 개발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고하도 목화 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엿봤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77계단 있는 달동네 송도마을 정비사업 본격화

새뜰마을 사업 43억원 투입

목포시가 지난 2월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동명동 송도마을’에 대한 본격적인 취역지 정비 사업에 들어간다.

7일 목포시에 따르면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동명동 77계단 주변과 송도마을의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목포시는 지난 4월 이 사업을 총괄할 코디네이터로 목포대 유창균 교수를 위촉한 데 이어 5월에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부, 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동명동 송도마을은 총 면적 1만4547㎡에 126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주민 대부분도 고하마을을 버리지 못한 노인들이

다. 게다가 30년이 넘는 노후주택 비율이 80%에 달하는 목포 원도심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꼽힌다.

목포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32억 8700만원과 시비 10억1400만원 등 총 43억원의 사업비를 확정하고, 올해 8억1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는 2019년 완공 예정인 새뜰마을 사업은 응벽정비·보안등과 방범용 CCTV 정비·

마을안길 노면 정비 등 안전 확보시설을 비롯해 노후 상하수도 정비·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생활 인프라 구축, 빈집정비·슬레이트 주택정비 등 주택정비 지원과 경로당 리모델링·위급응급·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 강화 등 모두 5개 분야 29개 사업이 추진된다.

새뜰마을 사업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사업 중 하나로 농어촌의 취약지역과 도시의 달동네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찾아가는 DJ 기념관’ 9월까지 완도서 특별사진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이하 DJ 기념관)이 학교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기념관’이 완도 장보고 기념관을 찾아간다.

7일 DJ 기념관에 따르면 기념관이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재구성한 특별전시를 통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장보고 기념관에서 특별 사진전을 갖는다. 6·15 남북 공동선언 16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특별전에는 2000년 방북 시 3일 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당시 신문 기사와 사진 등이 전시된다.

최명호 DJ기념관장은 “김 대통령의 유품, 사진 등을 전시해 민주주의·인권·평화사상을 이해시키고 자라나는 미래 인재들에게 노벨상의 꿈과 포부를 심어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전남지역 어디든 무료출장

"불만족 100% 환불"

"울리지 않고 잡음 없이 깨끗한 소리 착한 보청기"

출장문의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